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Haruhiko Kuroda

아시아 개도국들은 세계금융위기를 벗어나 힘차게 반등하고 있다. 전통적 시장들이 비틀거리는 동안 아시아 개도국들은 견고한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또 다른 “성장엔진”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나는 새로운 시각, 즉 내가 아시아 개도국들의 새로운 우월적 입지라고 부르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적 융성은 역내에 역동적인 우월적 입지를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V자형의 경기회복이 자리잡으면서 아시아 개도국들은 세계경제를 불황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그렇다. 아시아 지역의 경이로운 회복력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촉발한 유독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개혁과 구조 개선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협력과 통합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최근의 세계금융위기는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다음 단계로 더 격상시켜야 한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보다 강한 역내협력력으로 성공적인 위기대처가 가능했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해낸 다음 해인 지금,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세계경제성장을 일구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매우 다양한 역내경제들을 일관하여, 아시아 각국 정부는 경제회복에서 지속적 성장이라는 더욱 장기적인 목표로 옮겨가고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아시아는 발전전략의 폭을 넓혀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 빈곤의 감소를 지원하는 일이 아시아 지역의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나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전망은 어떠한가? 둘째,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ADB가 하고 있는

* 이 글은 2011년 2월 24일 개최된 ‘IGE/Prudential 국제금융특강’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점점 앞쪽 운전석을 차지해가고 있는 아시아가 세계경제 개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지난 30년간 인상 깊게 성장해왔다. 아시아 지역의 구매력(PPP) 기준 실질GDP는 1980년 3.3조 달러에서 2009년에는 24.5조 달러(추정)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세계경제가 3배 밖에 커지지 않았는데 7.5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전세계 평균소득 증가율은 2배가 안 되는데 비해 아시아 지역의 1인당 GDP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은 아시아를 EU,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지도상의 3대 중심점으로 당당하게 올려놓았다.

아시아 개도국들의 혁혁한 실적은 아시아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을 반영하고 있다.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대외무역과 기술에 대한 개방성,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유연한 노동시장, 그리고 건실한 재정과 통화정책 등이 강한 체력의 요소들이다. 과거의 위기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금융, 통화 및 재정개혁의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거꾸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나타난 세계적 경제하강의 심각한 영향을 완화시키기에 충분한 경기부양을 가능하게 하였고, 금융적 또는 재정적 완충의 기초를 만들었다.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전통적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경제환경이 허약하고 미약하게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파른 반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십 년이란 세월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듯 하다. 19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가 역내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선진국 시장을 바라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세계가 아시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나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단기성장전망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이다.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놀라울 정도로 견실하고 빠른 회복세는 2010년 8.6%(추산)의 성장률로 나타난다.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높았던 2011년도 아시아 지역의 수출 회복세는 약간 둔화될 것이다. 현재 ADB는 2011년 GDP성장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7% 이상의 활기 넘치는 수준이다. 중국의 2010년 성장률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며, 금년은 좀 더 지속가능한 9%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GDP는 작년에 8.5%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며, 금년에는 민간수요의 증가세에 힘입어 약간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비록 아시아 개도국들의 견실한 성장전망이 2010년과 2011년 모두 관리가능한 4% 정도의 인플레이 수준을 배경으로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특히 과열의 기미가 있는 나

라에서는 세계 1차산품 가격의 상승에 비추어 인플레이 압력이 면밀하게 감시되어야 한다.

금년도 경제성장전망이 약간 낮아진 것은 “정상화”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정착됨에 따라,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률로 복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위기 이후의 이러한 회복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시아가 엄청난 공동과제에 대처해 나가면서 회복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을까?

아시아 개도국들에 있어서 미래의 성공을 결정할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시한다면, 첫째는 성장의 원천을 재균형화하는 것이고(이는 세계적 불균형의 질서 있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둘째는 보다 동반성장적으로 성장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앞의 두 가지 과제를 우리의 위대한 자산인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달성하는 것,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첫째로,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상당한 혜택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금번 경제위기는 불균형적 성장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제회복은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기 이후의 회복국면을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성장으로 전환시키자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전세계적인 불균형을 질서있게 해소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선진국 경제들은 자국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재무구조를 재정비해야 하며, 아시아 개도국들은 국내 및 역내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선진국 경제에서 수요의 증가세가 상당기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아시아 개도국들 내의 소비 및 투자의 증가가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긴요하다.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무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내수요를 더 많이 일으켜 경제성장의 원천을 재균형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신흥시장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보다 많은 수요가 그들의 민간소비에서 나와야 한다. 이는 역내 다른 국가로, 또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다른 신흥시장으로 수출다변화가 가속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시아 개도국들의 무역상품구조도 역내에서 완제품 교역이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성장원천을 재균형화하는 것은 세계적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무역수지 흑자는 몇몇 국가, 특히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적자는 미국 한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부채를 줄여야만 한다. 아시아는 흑자를, 늘어나는 아시아의 개발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시아 개도국들이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소비도 하고 투자도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재균형화를 달성하자면 가계지출과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수요측면의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이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공급측면의 정책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역내 잉여저축을 개발, 특히 성장엔진에 운할유가 잘 공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복합 사회간접시설 개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시아 지역의 성장전망에 걸맞는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려면 2020년까지 8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ADB는 추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재균형화 과정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다.

둘째로, 아시아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성장패러다임을 진화시켜나가야 한다. 역내무역의 촉진, 국내 또는 국제적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촉진 등은 모두가 국내소비의 강력한 촉진수단들인데, 그 결과가 동반성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이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시아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빈곤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이 당면한 지상과제이다. ADB의 연구에 의하면, 20개 아시아 개도국 중 14개국에서 성장이 가속화된 최근 수년 간 지니계수(소득불평등의 척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개도국에는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데, 세계 빈곤인구의 2/3 역시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 지역의 18억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빈곤층도 있다. 실제로, 소득이 있는 빈곤인구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아인구는 조금밖에 감소되지 않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놀랍게도 5세 이하 어린이들의 45%가 저체중(低體重)이다. 이에 비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경우는 27% 수준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고도성장이 바람직하지만, 그리고 아시아 개도국들이 빈곤소득층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우리는 아시아인들이 기회균등과 기초적 사회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빈곤층에 대한 교육 및 보건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공식 부문과 농촌가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확대는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정책대안이다. 많은 나라에서 가난한 계층을 시장과 연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인적자본과 아울러 우리의 환경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희소하고 유한한 자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환경과 개발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을까?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현실이다. 우리는 지난 12개월간 기후변화가 앞발을 쳐들고 달려드는 것을 목격했다. 파키스탄의 참혹한 홍수, 호주의 홍수와 가뭄의 동시다발, 그리고 최근 유럽 및 미주 대륙에 걸친 겨울한파 등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는 모두가 극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있으며, 많은 빈민들에게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사회적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 최근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ADB의 연구에 의하면 만약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기후변화로 인한 총비용은 2100년까지 매년 이들 국가 GDP 총액의 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완화와 적응 양쪽 모두를 포괄하는 저탄소, 기후대응형 발전경로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달성될 수 없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가적, 지역적 나아가 전세계적인 공공재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ADB는 아·태지역의 빈곤감축의 책무를 지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지상목표이다. 대출이나 보조금, 기술지원 또는 정책자문을 검토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빈곤계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ADB의 향후 10년 전략의 틀이 되고 있는 “*Strategy 2020*”에서는 다음의 3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반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지역통합이 그것이다. 도로건설을 지원하는 경우든 도시의 수도공급을 개선할 경우든, 우리는 수혜자 중 어느 정도가 빈곤층이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가를 따져본다.

우리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빈곤감축을 달성하는데 필요조건(비록 충분조건은 아니지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발전의 격차를 줄이는 핵심적 구성요소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44년을 넘게 운영해오면서 ADB는 경제성장이 각국 민간부문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민간 협력체제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Strategy 2020*에 의거하여 우리는 민간 부문 활동과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이 분야가 연간 활동의 절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수송, 에너지, 수도 및 기타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보건이나 교육 같은 기초서비스에 대한 ADB의 지원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경제성장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순환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전략이 “동반성장”을 뒷받침한다.

ADB의 환경친화적 기술, 예를 들면 청정·재생가능 에너지원과 에너지효율 제고조치 등에 대한 지원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처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또한 환경적 세이프가드(safeguards)와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감독, 규제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에 개입하게 만든다. 이는 1997~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개도국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시장의 실패가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져온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입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DB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과 금융, 그리고 경제감시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무역규제를 없애고, 역내무역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지나친 대선진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적·세계적 경제쇼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SEAN, ASEAN+3(중국, 일본,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와 같은 기존 그룹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의 과정을 통하여, ADB는 무역을 원활화하고, 자유무역협정들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확대·심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자본흐름과 투자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개도국들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맞이하고 있다. 위기에서 힘차게 탈출한 아시아 개도국들은 이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를 강력

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경로로 되돌려 놓는 엄청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계 주요 강대국들과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나가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광대한 다양성은 지역 내 각국이 안고 있는 과제의 심각성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들은 성장의 원천을 재균형화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며, 성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ADB는 각 단체, 정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여타 개발파트너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균형되고, 동반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나아가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이러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 없는 아·태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질의 · 응답

질문 ADB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변 나는 ADB의 초창기 회원국인 한국이 상당한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초기에는 한국이 차입국이였기 때문에, ADB는 사회간접시설 및 교육 등 기타 부문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상당한 대출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ADB의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금방 졸업을 하였고, 이제는 주요 공여국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한국은 ADB에 인적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2,500명이 넘는 ADB 직원 중 900명이 전문직인데, 그 중에 한국인이 상당히 있다. 현재 고위직에 있는 한국인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나는 앞으로 고위직에 오를 한국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굳게 믿는다. 그러나 ADB에 대한 한국의 공헌이 재정자원이나 인적자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 공헌 또한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지난 30년간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급속히 발전해왔다. 즉, 한국의 경험은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매우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ADB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배워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이러한 교훈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ADB 내에서 한국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질문 최근 ADB가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였다. 향후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 및 운용에 대한 ADB의 계획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 모두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를 잘 알고 있다. CMI에 대한 ADB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처럼 새로운 제도들 속에서 ADB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사실 ADB가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 것은 두 번이다. 첫 번째는 중국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고, 최근에 홍콩에서 다시 발행되었다. 홍콩에서 발행된 위안화 표시 채권은 중국 밖에서 발행된 최초의 위안화 표시 채권이였다. ADB는 이 두 경우 모두에서 발생한 채권발행 수익금을 ADB의 중국 내 민간부문 활동에 사용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여전히 포괄적 자본통제체제에 있다. 이는 위안화 표시 채권이 다른 통화로 쉽게 태환될 수 없다는 뜻이다.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조차도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ADB는 중국 내의 민간부문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통화가 필요하다. 향후 중국이 자본통제를 완화하게 되면,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ADB의 중국 내 민간부문 활동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이다. 위안화는 태환이 가능해질 것이고, 우리가 여타 개도국들에서 그들의 통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기존의 제약 조건 내에서 ADB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 실제로 위안화 표시 채권에 ADB가 지불하는 금리는 심지어 중국 중앙정부가 자국의 위안화 표시 채권에 지불하는 금리보다 낮다. 나는 ADB가 위안화 표시 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으며, 자본통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상당히 늘릴 수도 있다고 본다.

CMI는 현재 계속 확대되어 다자화되고 있다. 초기의 CMI는 양자간 스왑(swap)협정의 네트워크였지만 지금은 1,2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안전망이다. 특히 ASEAN 국가들에게 이러한 규모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것은 일종의 아시아통화기금(AMF)에 해당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가까이 되고 일본의 외환보유 규모는 1조 달러이다. 이와 같은 규모는 아마도 과잉의 수준이겠지만, ASEAN 국가들에게 있어서 CMI는 자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안전망이다. 이는 그렇게 지속될 것이다. ADB는 처음부터 CMI의 설립 및 확대에 참여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 및 참여할 계획이다.

질문 ADB는 아시아 지역통화 형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답변 지난 1년간 유로존(Eurozone)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통화가 등장하리라는 것이 변함없는 나의 생각이다. 물론 공통통화 및 지역통화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역내 공통시장이 있어야 한다. EU는 단일통화에 착수하기 전에 효율적이고 공통된 단일시장을 설립했다. 현 단계에서는 ASEAN만이 일종의 공통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통시장의 필요조건은 FTA라던가, 대내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관세동맹만이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각국의 다양한 국내규제가 일치되어야만 공통시장이 출현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시장에 대한 계획이나 청사진은 없다. 다만 ASEAN을 위한 청사진은 존재한다. 이러한 공통시장을 바탕으로 지역통화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통화를 설립한다는 것은 급격한 변혁이다. 왜냐하면 단일 공통통화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들의 통화가 폐지되어야 하며 단일 중앙은행이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다.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통통화의 잠재적 회원국 모두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중앙은행과 통화를 포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통시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 단일통화가 생겨야 하는 것이다. 공통시장에서 공통통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유럽에서조차도 매우 큰 정치적 결정이었다. EU 회원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통통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도, 단일통화를 운용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은 지난 1년간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아시아 공통통화는 등장할 것이며, 공통통화가 설립되기까지는 수 십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